제 4 실　악기 전시해설

N-107 채색 그림 북통

기악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북통입니다. 목제로, 표면에는 연꽃 및 보상화 무늬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N-108의 채색 그림 북통과 함께 제작 당시의 화사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나라시대의 귀중한 작례입니다.

N-111 계루고 북통

계루고는 북통의 양끝에 가죽을 덧대고, 목에 끈을 걸어 배 앞에 늘어뜨린 뒤 채로 쳐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아악에 사용되었습니다. 오동나무로 만들었으며 표면에는 옻칠과 채색을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구체에 가까운 모양으로 옛 양식을 보여줍니다.

N-105 저

저는 가로로 부는 피리로 횡적 또는 용적이라고도 하며, 퉁소와 더불어 당악의 악기로 사용되었습니다. 구멍을 7개 내었고, 부는 곳과 첫 번째 구멍 사이를 두 자루의 대나무로 연결하였으며, 구멍을 제외한 표면에는 벚나무 껍질을 감았습니다.

N-106-1 갈고

갈고는 북통의 양끝에 가죽을 덧대고 줄을 조여 조립한 뒤, 목제 받침에 놓고 양손에 든 채로 쳐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아악에 사용되었습니다. 목제 북통의 바깥면에는 사자와 모란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N-110 갈고 받침

갈고를 놓고 연주하는 데 사용하는 목제 받침으로 붉게 옻칠하였습니다. 천판의 돌기 안쪽에 도려내진 홈과 북 가죽 부분의 위치가 딱 맞는 점으로 보아 N-106-1의 갈고와 한 세트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N-103 금주

금주는 금이나 쟁의 현을 받치고 음정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본작은 신라금에 사용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표면에는 옻을 칠하였고 기리하쿠(금박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라 풀을 먹인 바탕에 뿌리는 것) 기법으로 이파리 모양의 무늬와 꼭대기 부분의 테두리를 표현했습니다.